

“기후위기 선제 대응·친환경 도시 조성 앞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작년 최우수 이어 2년 연속 수상 신호천마을 전력망 구축 성과...“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도시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김병내(61·사진) 광주 남구청장이 최근 거버넌스센터가 주관한 ‘제6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공모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거버넌스센터는 지난 2003년 대한민국 거버넌스 운동을 알린 수단법인으로, 지방정치 발전 차원에서 매년 공모대회를 열어 우수 지방정치인과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공모대회 주제는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였으며 미래 개척과 주민 생활 편의 확대, 공동체 역량 증대 등 7개 분야를 평가했다. 김 청장은 미래 개척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남구는 지난 2019년부터 농촌 지역인 대촌동을 시작으로 관내 도심 곳곳에 6년간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며 에너지 자립 도시의 기반을 닦고 있었는데 이러한 친환경 정책은 지역 사회의 미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끈다는 점이 이번 공모대회에서 호평 받았다.

김 청장은 “관내 주택과 상가 등 1가구 1발전소를 설치해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50%를 달성, 에너지 전환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신호천마을에 도입, 세대별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에너지 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익으로 남기는 토대를 구축했다.

마이크로그리드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여러



방식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동하는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기술로써 에너지 자립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김 청장은 “마을회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하고 ESS와 연결, 주민들

이 참여하는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어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자립 마을’을 조성해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수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남구는 올해 광주 최초로 입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민간 아파트에 105kW급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중립 포인트제’ 주민 참여율 62.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더불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축제를 열어 이틀간 광주시민 4천500명여가량이 다녀갈 만큼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2만 남구 주민들과 함께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 도시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그동안 기후 위기 선제 대응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답게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도 함께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송원대 권성욱 대외협력부총장 인태명 대외협력처장 임명



권성욱

인태명

광주실업 전문대학으로 설립돼 올해 개교 59년을 맞는 송원대학교가 처음으로 부총장직을

신설하고 인사를 단행했다.

송원대는 1일 “송원관 3층 이사장실에서 대외협력부총장에 권성욱 교수, 대외협력처장에 인태명 교수를 각각 보직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협력부총장은 향후 대학 혁신사업 신규 추진과 기존 특성화사업 유지에 위해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 협의하는 업무를 맡는다.

고경주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은 “중책을 맡게 된 부총장 등 교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대학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이지



진도경찰, 보행자 교통안전 캠페인

진도경찰서는 “최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남청 산하 경찰서가 동시에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캠페인은 진도를 이리삼 사거리에서 진도군청·읍사무소, 진도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녹색어머니회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진도경찰청은 횡단보도 정지선·신호 준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무단횡단 금지, 밝은 옷 입기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으며, 보행자를 대상으로 전단지과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행·운전 요령 등을 홍보했다. /진도=박세권기자



광양경찰 ‘수사파트너십 포럼’ 개최

광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대화마루에서 수사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수사파트너십 포럼은 지역 치안 이슈에 대해 주민과 경찰이 더 관심 있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포럼 위원은 최병윤 서장 등 내부위원 9명, 외부위원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경찰발전협의회, 안보지원협의회, 자율방범대, 지역 이·동장, 녹색어머니회, 청소년육성회, 방범연합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포럼에서 위원들은 전세·보험사기, 교통사고 등 범죄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현재 지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관심 촉구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병윤 광양경찰서장은 “일상 속 암수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경찰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SNS를 활용한 제보 등 경찰과 시민의 좋은 파트너로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인사

전남매일 ▲편집국장 박간재

행사

▲제45회 담양군민의 날 기념식=3일(금) 오후 1-4시 담양문화회관, 담양군 담양읍 지평7길 29, 담양군 행정과 행정팀 (061-380-3175).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어린이 사랑’ 온기나눔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오는 5일 제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1일 지원2동 자원봉사캠프 표지기 10여명과 ‘어린이 사랑’ 온기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가 추진 중인 ‘사랑의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회 복지법인 아동양육시설 광주영신원 어린이 50여명에게 수제 간식 꾸러미를 포장해 전달했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광주 동구 주관으로 ▲이웃과 함께 마을 청소 등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인파 밀집 대비 교통정리 등 봄철 축제·행사 나눔 즐기기 ▲가정의 달(5월)·보훈의 달(6월)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눔 활동을 동별로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조상권 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장동 통장봉사단과 계림2동 자원봉사캠프에서도 어린이집 아동 대상 간식 꾸러미 나눔,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반려 화분 나눔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웃과 함께 따스함을 더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계획·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권 센터장은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봉사 등 나눔 문화가 확산돼 가정의 달인 5월이 빛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정기자



‘제2회 영·호남 임원 친선 파크골프대회’ 성료

제2회 영·호남 4개 시도 임원 친선 파크골프대회가 지난달 29일 광주 서봉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

광주시파크골프협회(회장 이용범)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이금용 대한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한 영·호남 4개 시도협회 임원과 광주시 5개 구 협회 임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인전 36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용범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3년부터 달빛동맹을 통해 영남과 호남이 상호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영역의 스포츠를 통한 화학적 결합의 완성을 위해 파크골프가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에서는 김성한 전 해태타이거즈 감독에게 광주파크골프 홍보대사 위촉장이 수여됐다. /박희중기자

목포시의회 재정안전연구회 ‘선진지 견학’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안전연구회는 1일 “지난달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행정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지난 2010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돼 새롭게 출범한 창원특례시를 방문,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지역 의원들의 역할 정립과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운영 효율성, 건전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 및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원석 목포시의회 재정안전연구회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타 지자체의 관심과 대응을 확인해 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목포시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전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전남도는 1일 “2개 시·군 이동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마을 안전지킴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전남도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전문강사를 파견해 이뤄진다.

교육은 12월까지 이장·부녀회·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100여회 예정돼 있으며 지난 달 25일 강진군·영암군에서 첫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은 1회당 인원 20-100명의 도민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061-280-7340-061-1366)나 누리집(https://shp.mogef.go.kr)에 신청하면 손쉽게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교육은 1회당 인원 20-100명의 도민이 모여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전화(061-280-7340-061-1366)나 누리집(https://shp.mogef.go.kr)에 신청하면 손쉽게 폭력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김재정기자

담양농협-해남 옥천농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

담양농협은 1일 “전남 해남 옥천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군청에서 진행된 기탁식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각 800만원씩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이병노 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강성수 담양농협 상임이사, 홍성용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 농정지원단장, 윤치영 옥천농협 조합장, 김병진 담양농협 조합장, 김계열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 이기복 NH농협은행 담양군지부장 외 농협 임직원 16명 등이 참석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순천농협-중앙병원 ‘조합원 복지 증진’ 협약

순천농협은 1일 “전남 농협 중회의실에서 순천중앙병원과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남주 조합장, 송영웅 대표위원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조합원 질향에 대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 등 복지 증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송영웅 순천중앙병원 대표위원장은 “협약을 통해 순천농협 조합원과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료 복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주 조합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합원들의



의료비가 경감되고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협과 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양홍렬기자